

무주산골영화제 간식 부스 인기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

지역 업체 10곳 참여 다양한 먹거리 선보여... 홍보·체험 부스 등 운영

제14회 무주산골영화제가 4일 개막한 가운데 예체문화관 주차장에 마련된 간식 부스가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 간식 부스에는 지역 업체 10곳이 참여해 식시루와 분식, 디저트, 음료 등 다양한 먹거리를 선보이며 영화제를 찾은 관람객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대표 메뉴로는 무주산골영화제의 시그처 음식으로 자리 잡은 '숙주와 삼겹살'을 비롯해 '소고기 불초밥', '새우 불초밥', '냉짬뽕' 등 다양한 식시루가 준비됐다.

분식류로는 국물 떡볶이와 샐러드·팬츠 김밥, 해물 부추전, 체더치즈 감자튀김 등이 마련돼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산 농산물을 활용한 디저트도 눈길을 끌고 있다.

무주산 블루베리를 활용한 컵빙수와 무주산 딸기 라테, 옛날 팔빙수는 들

른 전미를 활용한 소금빵과 천마 모닝빵 샌드위치, 사과와 천마를 넣은 수제 쿠키, 반디빵 등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무주산 머무를 활용한 머무주스와 머무슬러시도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맛을 선사하고 있다.

영화제 기간 간식 부스 주변에는 다양한 홍보 및 체험 부스도 함께 운영된다.

음식의료 부스에서는 응급구조학과 교수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응급처치와 비상약품 지원, 구급차 대기 등 안전 관리를 담당한다.

무주 관광 안내 부스에서는 영화제와 함께 둘러볼 수 있는 지역 관광명소를 소개하며 오는 9월 개최되는 제30회 무주반딧불축제 홍보도 진행한 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를 위한 '무주사랑 고향사랑 부스'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안내와 함께 반딧불이 신비탑

사관, 반딧불 사과 등 70여 종의 답례품을 전시·소개한다.

영화제 현장에서 무주군에 기부할 경우 등나무문동장 입장권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무주·진안 국가지질공원 홍보부스'에서는 무주 오산리 구상화강편마암과 적상산 천일폭포, 용추폭포, 금강버섯길 등 지역 지질명소를 소개한다.

지질명소 지식 퍼즐 맞추기와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관람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무주군 청년 사업과 제품을 홍보하는 '무주청년마켓', '무주시네랄', '무주 청년정책 프리뷰' 부스도 마련돼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와 수공예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사랑도민증 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안내와 할인 혜택, 가맹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군, 블랙야크(BAC) 앱 연계 명산 14좌 인증 돌입

장수군은 글로벌 산악 명소인 프랑스 샤모니를 모티브로 추진 중인 K-샤모니 장수군 조성사업의 핵심 브랜드 프로그램인 '2026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를 본격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상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장수군의 대표 산악자원인 백두대간과 금남호남정맥 일대를 하나의 거대한 아웃도어 무대로 재해석한 체험형 산악관광 콘텐츠다.

군은 아웃도어 전문 브랜드 블랙야크와 협업체 오는 12월 31일까지 챌린지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을 통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며, 장수군을 대표하는 명산과 주요 산악 거점 14개 인증지점을 방문해 GPS 및 사진 인증을 완료하면 된다.

인증지점은 백두대간 코스 8곳과 금남호남정맥 코스 6곳으로 구성됐다. 백두대간 코스는 △덕유산 서봉(장수 덕유산) △구시봉(김대봉) △영취산 △백운산 △광대치 △봉화산 △봉화산 철쭉단지(매봉) △사치재이며, 금남호남정맥 코스는 △정안산 △사투봉 △신신산 △팔공산 △천성대미 △사갓봉이다.

특히 이번 챌린지는 지난해 운영 당시 전국 산악인과 아웃도어 동호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BAC) 애플리케이션

도 동일 코스로 운영되며 장수군 산악관광 브랜드의 연속성과 상징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원주자에게는 블랙야크에서 25,000 BAC포인트를 제공하며, 장수군은 선착순 1,000명에게 완주 메달과 기념 양말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편 '2026 장수 K-샤모니 마운틴 챌린지'는 산악레저와 아웃도어 활동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BAC 애플리케이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 총력

진안군, 군민 예방수칙 준수 당부

진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과 야외활동 증가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강화에 나섰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쯤쯤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이 대표 질환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내 감염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군은 농작업과 텃밭 활동이 활발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 위험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노인 일자리 참여자와 농업인 단체 등 야외활동이 많은 군민

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 운영하고, 최근 5년간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다 발생한 마을을 대상으로 집중관리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예방수칙 실천과 함께 생활 주변 환경관리의 중요성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영농작업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마을방송, 전광판,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예방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야외활동 시 긴 옷과 장갑·모자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 전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또



한 야외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와 작업복 세탁을 실시하며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6·25 전쟁 미수습 전사자 '유가족 찾기' 집중 운영

진안군 보건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오는 6월 30일까지 미수습 6·25 전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유가족 유전자 시료 채취' 집중 운영 기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6·25 전쟁 당시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으나 아직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3,000여 호국 용사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유해를 가

쪽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전개되는 국가적인 사업이다.

참여 대상은 전사자의 유해를 찾지 못한 친가 및 외가 8촌 이내 유가족이며, 전사자 제적등본, 유족증 사본, 전사통지서 사본, 병적증명서 중 한 가지 증빙서류를 지참해 진안군 보건소 임상병리실이나 가까운 군 병원 등을 방문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딱지본 소설 주제 '김환태문학관 특별전시'

무주군이 오는 12월 31일까지 김환태문학관 특별전시 '근대의 이야기책, 베스트셀러가 된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근대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딱지본 소설을 주제로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볼거리와 문화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장에서는 '심청전', '춘향전', '류충렬전' 등 192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딱지본 실물 도서 30여 권을 만나볼 수 있다.

무주 김환태문학관 1층 특별전시실은 입구를 포함해 총 6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입구에는 전시의 분위기를 담은 대형 패널이 설치돼 관람객들의 포도존 역할을 하고 있다.

체험존에서는 스티커와 한글 도장을 활용해 자신만의 이야기를 담은 딱지본 표지와 내지를 직접 제작해 볼 수 있다.

한편 김환태문학관은 무주 출신 비



평문화가인 김환태 선생의 생애와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설립된 문학관이다.

문학관에는 세미나실과 다목적 영상관, 전시관, 휴게시설 등이 마련돼 있으며 김환태 선생의 사진과 저서, 유품 등 다양한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숲가꾸기 사업 본격 추진

장수군은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총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2026년 숲가꾸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의 생물환경을 개선하고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해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총 1,127ha 규모에 걸쳐 다양한 유형의 숲가꾸기 사업이 추진된다.

사업별로는 조림목의 원활한 생육을 돕기 위한 풀베기 사업 600ha, 조림목의 성장을 저해하는 덩굴류 제거사업 30ha, 우량목 중심의 건강화산림 조성을 위한 어린나무가꾸기 302ha, 산림 밀도 조절과 우량목 생산 촉진을 위한 큰나무가꾸기 135ha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로 대형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 확산을 차단하고 산림 내 연료물질 줄이기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60ha를 중점 추진해 산림재해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농기센터, 여름철 상추 맞춤형 방망 시설 도입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매년 반복되는 여름철 고온 피해를 경감하고 고품질 상추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 '2026 고온기 상추 안정생산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1ha 규모 14개소 하우스에 히트펌프 이용 방망방기 설치를 통해 하우스 내 열기를 밖으로 빼내 내부 온도를 낮추고 작물 생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폭염 일수가 증가하면서 상추 등 엽채류의 생육 저하, 수량 감소,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온·습도 관리 기술을 체계화하고 고온기에도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한 재배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